

용당포에서의 8일 최초로 영어를 만나고 우리말이 세계에 알려졌다



김경희의
스케치로 읽는 풍경

“이국의 배 한 척이 동래 용당포 앞바다에 표류해 이르렀습니다. 배 안의 사람들은 모두 코가 높고 눈이 파랗습니다. 역관을 시켜 국호와 표류해 온 연유를 물었지만 중국어, 만주어, 일본어, 몽고어를 모두 알지 못하였습니다. 붓을 주어 쓰게 하였더니 모양새가 구름과 산과 같은 그림을 그려 알 수가 없습니다.”
〈조선왕조실록 정조 21년 10월 25일〉

1797년 10월 14일, 한국인의 영어능력증은 어쩌면 이때 생겨났는지도 모르겠다.

이날 이른 아침 남구 용당동 앞바다에 정제 모를 범선 한 척이 등장했다. 윌리엄 로버트 브라우턴(1762~1821) 함장이 이끄는 87톤급 영국 해군탐사선 프로비던스호였다. 식수와 연료로 쓸 나무가 떨어져 정박지를 찾다 용당포 해역까지 떠밀려 온 것이다. 한적한 어촌 마을 용당포는 괴선박의 출몰로 발각 뒤집혀졌다. 소문은 삽시간 돌았다. 젊은 처자만 남겨두고 노인부터 애들까지 한가득 고깃배를 타고 미끈한 범선 구경에 나섰다. 공포보다는 호기심에 가까웠다.

남자들은 머리 가운데 상투를 뚫고 여자들은 머리 카락을 꼬아 머리 위로 땀아 흘렸다. 생김새가 중국인을 닮았다. 특히 작은 눈이 그렸다. (중략) 오후에는 높은 사람들이 방문했는데, 자기 나라에 왜 왔는지 알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안타까웠다.
〈브라우턴 함장 항해일지 1797년 10월 14일〉

후대는 이를 두고 세기의 만남이라고 평한다. 영어가 맨 처음 한반도에 첫 선을 보인 순간이어서다. 그러나 선상에서의 조우는 양가 상견례 마냥 데면데면했다. 외도부터 너무 달랐다. 그보다는 불통이 더 난제였다. 훈민정음을 표현을 빌리면 ‘나랏 말싸미 서로 사맛다’ 아니했다. 촌로들을 물리고 나랏말 하는 뉘으신 분들이 도포자락 휘날리며 나섰지만 뿔뿔뿔뿔뿔뿔하는 매한가지. 웃지 못할 해프

1797년 10월 남구 앞바다에 영국 범선 출현 세기적 만남 불구 언어불통으로 싱겁게 종결

남도 있었다. 함장이 “여기가 어디인가?”라고 묻자 주민들은 나라 이름을 묻는 줄 알고 “조선”이라 답했고 외국 역사책에 그렇게 기록됐다. 60년이 흐른 1859년 6월 또 다른 영국 군함이 부산항 일대를 탐사하기 전까지 용당포는 ‘Chosan Harbor(조선항)’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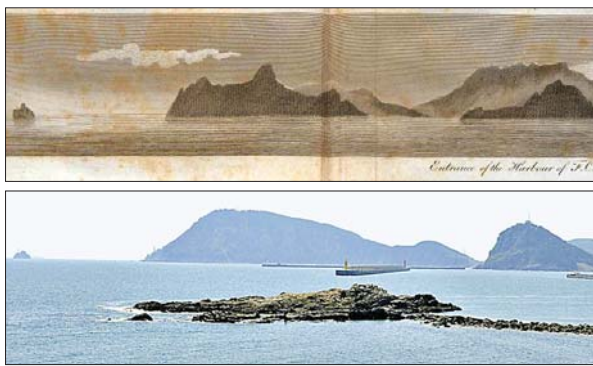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과 평범 장식의 모자를 쓴 군인들이 우리 배를 방문했다. 그들은 소금에 절인 생선, 쌀, 김을 선물로 주었다. (중략) 그들은 무엇이 필요인지 말하라고 해 나는 육지에서 풀을 뜯고 있는 황소를 가리켰지만 그들을 설득할 수 없었다. 우리는 황소를 매일 쳐다보며 실망감을 감내해야 했다.
〈10월 15일〉

범선은 북태평양 탐사가 목적이었다. 선전(宣戰)도 고려도 아니었다. 하지만 서로 말귀가 통하지 않으니 불신이 쌓였고 불신은 다시 두려움으로 변했다. 신선대 뒷산에는 연일 봉화가 피어올랐고 마을에는 묘한 긴장감이 돌았다. 나랏님과 고관대작들은 백안의 이방인들이 물에 내리는 것을 꺼려했다. 그래도 정 많은 민족이라 식수와 쌀값은 “그만 달라”할 때까지 공급해줬다. 물로 허기를 채우던 선원들은 언덕 위의 한우를 보며 입맛을 다셔야 했다.

아침에 우리 친구들이 배로 와 우리가 떠나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중략) 그들은 만약 우리가 항해의 위쪽 린 집(자성대를 가르킴)으로 상륙하면 사형까지 당할 수 있다고 설명하는 듯 했다.
〈10월 20일〉

손짓 발짓으로 수집한 한국말 38단어

프로비던스호의 브라우턴 함장은 용당포에서 8일간 머물면서 주민들과 손짓발짓으로 대화를 나눴다. 우리말 38개 단어를 채집, 영어로 돌아가 책을 내면서 이를 소개했다. 일부 엉뚱한 오역도 있지만 우리말이 서구에 최초로 소개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브라우턴 함장이 용당포를 떠던 날 새벽에 그린 조감도. 아래 사진은 신선대에서 찍은 영도 모습.

브라우턴 함장 일행과의 접촉은 우리에게서 서양문화와 첫 만남이라는 희대의 이벤트였다. 서양인의 출현 자체가 박연과 허멜 이후 150년 만이었다. 우리 역사의 물결을 바꿀 이 근세사적 사건은 그러나 언어불통으로 8일 만에 일단락 났다. 그래도 성과는 있었다. 풍부한 성격의 브라우턴은 영국으로 돌아가 1804년 자신의 항해일지를 정리한 ‘북태평양 탐사항해기’라는 두 권의 책을 발간하면서 용당포와 조선에 관한 이야기를 실었다. 그 속에는 18세기 조선의 풍습과 생활 등이 기록되어 있다. 책 부록에는 우리말 38개 단어도 채집해 실었다. 우리말이 최초로 영미권에 전파된 것이다.

(중략) 코리안 친구 4명 중에 한명이 출항준비를 하는 것을 보고 매우 기뻐했다. 나는 그에게 망원경과 총을 선물로 주었다. 수많은 코리안 친구들은 기쁜 마음으로 근처 산으로 올라가 우리의 출항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어떠한 보상도 바라지 않고 우리에게 나무와 물을 공급해 준 이들에게 깊은 감사를 느꼈다.〈10월 21일〉

| | | |
|---|---|--|
| Hannah(One) Tool(Two) Soe(Three) Doe(four) Tassah(Five) Yessah(Six) Yerogo(Seven) Yaltai(Eight) Aho(Nine) Ysel(Ten) Hah(sun) Tareme(Moon) Curome(Stars) | Pool(Fire) Mool(Water) Parrum(Wind) Moc(Land) Sanna(Man) Kageep(Woman) Noon(Eye) Noonship(Eye-brow) Kace(Nose) Yeeep(Mouth) Yee(Tooth) Murree(Hair) Shuame(Beard) | Pul(Arm) Sone(Hand) Socora(Fingers) Tantangee(Leg) Cheenumchee(Thigh) Kat(Hat) Chap(House) sonamo(Tree) Oon(Silver) Koon(Gold) She(Bullock) Towvee(Hog) |
|---|---|--|

* 하버드대학 전자도서관(<http://hollis.harvard.edu>)에서 'William Robert Broughton'을 입력하면 브라우턴 함장의 북태평양 탐사항해기 전문을 만날 수 있습니다.

■ 남구를 빛낸 문화·예술인 ④ 건축가 김중업

시대를 앞선 천재 건축가 UN기념공원에 예술혼 남기다

건축가 김중업(1922~1988)은 평양에서 태어나, 해방 전 일본의 건설회사에서 잠시 근무했다. 그는 1952년 베니스 국제예술가 대회에 참가해 근대 3대 건축가로 꼽히는 프랑스의 르 코르뷔제(Le Corbusier)를 만나 그의 아래서 근무했다. 1956년에 귀국해 스승의 모더니즘을 한국적인 전통과 접목해 철근 콘크리트 한옥이라는 새로운 건축 양식을 탄생시키게 된다.

완벽함을 추구하는 그의 고집은 대단했다. 군사정권 시절 5·16정변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등 입바른 소리를 하다가 49세이던 1971년 해외로 8년간 추방되기도 했다. 그가 달밤에 불국사 기둥을 부둥켜안고 평평 읊었다는 일화가 있다. 이처럼 그는 가슴으로 사물을 느꼈고 그것을 자신의 감각으로 승화시켰다.

남구의 UN기념공원 정문과 추모관은 1966년 11월 30일까지 봉납된 김중업의 작품이다. 남구민이 늘 찾아와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이다. 파리나 로마에 있는 황제들의 개선문만큼 웅장하지는 않지만 보면 볼수록 아름다운 건축물이다. 웅틀 앞 홍삼문처럼 성역에 범접(犯接)치 못하게 막지 않고, 아담한 모습이 마치 구원으로 인도하는 베아트릭체와 같이 성역(聖域)으로 들어오라고 이끄는 듯하다.

건축가 김중업은 UN기념공원의 정문을 설계할 당시의 마음을 그의 저서 ‘건축가의 빛과 그림자’에서 이렇게 적고 있다. “지붕의 네 모서리 끝 추녀는 머나먼 고향을 향한 그리움을, 지붕 아래 네 개의 물방아는 그들(유엔군 전몰장병)의 눈물을 나타내며, 우리로 마무리된 지붕의 천장은 유엔군들의 영혼의 빛을 상기시키고 있다.” 그는 정문을 설계할 당시의 심경을 “이국땅에서 평화를 위해 싸우다 간 여러 나라의 전사들에게 두 손 모아 경건히 바친 작품이며, 이 소품은 한껏 부른 선에 부드러움을 불어넣어 어린 시절의 향수를 기억하면서 잃어버린 고향을 되찾으려는 박한 작업의 소산이다”라고 했다. 그리고 ‘UN 관련 건축물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건축’이라고 평한 유엔트 UN 사무총장의 전사를 들은 작가로서 큰 기쁨인 동시에 자신에게도 소중한 작품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하였다.

UN기념공원의 정문은 도로에서 바



라보면 흔한 기와 집 처럼 보인다. 문을 들어서면 지붕의 땅 아래로 누르려는 기세를 천장에 비치는 빛으로 하여금 천상으로 향

하게 한다. 그 빛은 용사들의 주검을 묻은 암흑의 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땅으로 탈바꿈시키고 있다.

지붕을 받든 기둥은 아프로디테 신전의 여사제(女祭司)들이 하늘을 떠날 때는 모습이다. 왜 정문을 여성스럽게 만졌을까? 아마 이곳에 누워 있는 장병들은 집을 나설 때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전장으로 나섰으리라. 그들은

근대 3대 건축가 르코뷔제 사사

유엔기념공원 정문·추모관 설계

전몰장병 추모 다양한 종교 담아

죽어가면서 자신을 가장 반갑게 맞아줄 어머니, 누이 혹은 아내 등 그들의 여인을 그리워했을 것이다. 정문 지붕의 처마가 천상을 향해 하여 전몰용사들의 영혼이 그들의 고향에 대한 향수 속에서 살게 해주고 싶었을 것이다.

1964년 8월 2일 UN기념공원에 건립한 추모관 역시 김중업의 작품이다. 추모관은 다양한 종교적 배경을 감안해 설계되었다. 건물은 지평하는 여섯 개의 노출된 들보와 삼각 형태의 구조는 추상과 영원성을 강조했다. 추모관 양쪽의 스테인드글라스는 아름다운 빛으로 평화의 사도, 승화, 전쟁의 참상, 사랑과 평화 등을 표현하였다. 건물 내부 16개의 스펀 16개 전두 지면 국가를 나타내었으며, 이 선이 중앙 정면 바닥에서부터 유엔마크를 통과해 하늘로 솟아나는 미로 천장을 가로지른 것은 전쟁의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소망과 의지를 표현하였다고 한다.

이제는 ‘영원한 평화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정문과 추모관을 바라보며 천재 김중업의 숭고한 뜻을 기억하며 잠시 머리를 숙이려 한다.

(공기화 부산교대 명예교수, 수필가)



천재 건축가 김중업이 설계한 유엔기념공원의 정문과 추모관.

2014년 계량기(저울류) 정기검사 실시

남구는 2014년 5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관내 사용중인 2,000kg 미만의 계량기(저울류)에 대해서 동주민센터에서 정기검사를 실시합니다. 식육점, 마트 등 저울을 소유하고 있는 가게는 꼭 일정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 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607-4484

- 검사일자 및 장소
 - 검사실시 기간 : 2014. 5. 14. ~ 6. 13. (10:00~16:00)
 - 구역별 검사일자 및 장소
- 검사장소 : 해당 동주민센터

| 일자 | 해당구역 | 일자 | 해당구역 | 일자 | 해당구역 | 일자 | 해당구역 |
|------|------|------|------|------|------|------|------------------|
| 5.14 | 대면1동 | 5.21 | 용호1동 | 5.28 | 간만1동 | 6.5 | 문현2동 |
| 5.15 | 대면3동 | 5.22 | 용호2동 | 5.29 | 간만2동 | 6.9 | 문현3동 |
| 5.16 | 대면4동 | 5.23 | 용호3동 | 5.30 | 우암동 | 6.10 | 문현4동 |
| 5.19 | 대면5동 | 5.26 | 용호4동 | 6.2 | 우암동 | 6.11 | 소재장소 검사 (연계별 순회) |
| | | | | | | | 미수검자 추가 검사(구청 앞) |
| 5.20 | 대면6동 | 5.27 | 용호5동 | 6.3 | 문현1동 | | |

2014 민방위 마스코트 공모

- 공모주제 : “국민행복지킴이 남매 「가칭」 민방위와 민방위”
- 공모기간 : 2014. 4. 15. ~ 7. 15.
- 주관 : 소방방재청
- 응모방법 : 각 구·군청 홈페이지 또는 민방위

담당자 e-mail 제출
※ 응모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구·군에 응모
•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데이터파일, 작품설명서
• 시상식 : 제39주년 민방위대 창설기념일 (2014. 9. 22)
※ 시상내역 : 소방방재청장상(최우수 1, 우수 2, 장려 2) 및 시상금품

제16기 오륙도여성대학 운영

여성의 잠재 능력개발과 사회 참여의식 제고로 건강한 가정과 다함께 살자는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제16기 오륙도여성대학」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운영기간 : 2014. 6. 16. (월) ~ 7. 16. (수) ☎ 5주
- 매주 월·수요일 10:00~11:30
- 장 소 : 남구청 1층 대강당
- 모집대상 : 남구 거주 일반여성 250명 ☎ 선착순 마감
- 수강료 : 무료 ■ 접수기간 : 2014. 4. 28. (월) ~ 6. 9. (월)
- 접수방법

| 요일/일자 | 주제 및 초청강사 | 요일/일자 | 주제 및 초청강사 |
|----------------------------|---|----------------------------|--|
| 6.16(월) 10:00 ~11:40 | 임교식 진짜 행복해 지는 방법 시각디자인학과교수 | 7.2(수) 10:00 ~11:30 | 시낭송과 마음치유 강기숙(미국자유시낭송 아카데미대표) |
| 6.18(수) 10:00 ~11:30 | 성평등한 안전한 여성사회 만들기 박영선 동원대학교 행정문화과 겸임교수 | 7.7(월) 10:00 ~11:30 | 신나는 줌바댄스와함께 김주연 부경대학교 평생교육원강사 |
| 6.23(월) 10:00 ~11:30 | 꼭 알아야 할 8가지 여성질환 최진규 홍문문화병원진료부장 | 7.9(수) 10:00 ~11:30 | 부동산동주와 생활동주 류지홍 부경대학교 평생교육원강사 |
| 6.25(수) 10:00 ~11:30 | “함께해요” 다문화와의 아름다운 동행 배수경 한국글로벌복지지대교 부산고려대학교문화 교육연구원 | 7.14(월) 10:00 ~11:30 | 누구나 쉽게하는 행복마래설 임원용 국립연극관관장 부산지역문화재단 |
| 6.30(월) 10:00 ~11:30 | 호소의 작품과 진실 황세란 한국인간개발원장사 (한 KBS)와임아름매주 (수)고정방송 | 7.16(수) 10:00 ~12:00 | 오세훈의 힐링노래교실 문화센터강사 수료식(20분) |

* 강의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산따라 물 따라

산행을 떠나요



〈2014. 5.〉

| 구분 | 산악회 | 산행일자(요일) | 산행장소 | 연락처 |
|-----|--------|-------------|------------|---------------|
| 대면동 | 청암산악회 | 14(일) | 남원 봉화산 철쭉 | 010-6778-3192 |
| | 악현산악회 | 21(수) | 정충 재암산 | 010-4655-4370 |
| | 용호산악회 | 25(금) | 전남 곡성 동악산 | 010-2593-0361 |
| | 제일산악회 | 4(일) | 칠곡 우학산 | 011-594-4192 |
| | 여명산악회 | 4(일) 横(월) | 홍도 흑산도 | 010-3554-4392 |
| | 환경산악회 | 4(일) | 지리산 산심봉 | 010-3575-3448 |
| 용호동 | 용신산악회 | 11(일) | 서울 북화산 | 011-488-3307 |
| | 다산산악회 | 4(일) | 서릉 부암산 | 010-3870-2660 |
| | 금강산악회 | 4(일) | 해남 달마산 | 010-3865-9051 |
| | 21C산악회 | 11(일) | 남원 봉화산 | 010-6266-8525 |
| | 부산산악회 | 4(일) 横(월) | 군산 선유도 섬관광 | 011-576-2729 |
| | 청산산악회 | 4(일) | 합천 황매산 철쭉 | 010-8008-2087 |
| 용당동 | 하마름산악회 | 11(일) | 진안 명도봉 | 010-9324-3424 |
| | 썬산악회 | 18(일) | 남원 봉화산 | 010-5269-5809 |
| | 문화산악회 | 23(금) 横5(일) | 제주도 | 016-564-8882 |
| | 용마산악회 | 11(일) | 경북 주왕산 | 010-4433-8809 |
| | 녹색산악회 | 25(일) | 정충 재암산 | 010-3865-7692 |
| | 글로벌산악회 | 16(금) 横7(토) | 제주 하라산 | 010-8287-1192 |
| 감만동 | 솔가문산악회 | 25(일) | 순창 강천산 | 010-2397-1133 |
| | 우남산악회 | 18(일) | 남원 봉화산 | 010-7520-6666 |
| | 우일산악회 | 4(일) | 남원 지리산 바람골 | 010-3557-2847 |
| | 한솔산악회 | 11(일) | 가창 월여산 | 010-9620-2874 |
| | 우암산악회 | 27(화) | 완주 윤양산 | 010-6578-0488 |
| | 문사산악회 | 11(일) | 밀양 표충사 사사재 | 019-558-2828 |
| 문현동 | 문현산악회 | 4(일) | 충주 제비봉 | 011-9544-3434 |
| | 문현산악회 | 18(일) | 영주 소백산 | 010-6706-1255 |
| | 원뿌리산악회 | 18(일) | 고흥 거금도 | 010-4564-7769 |
| | | | | |

* 산행일정은 산악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